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잔디의 노래



“ 김잔디예요. 성이 김이라서 김잔디라고도 해요. 저는 노래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전학은 잔디의 야무진 인사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왠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반의 여왕은 나왔습니다. 공부 는 물론 예쁜 얼굴까지 남한테 뒤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잔디 주변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 잔디는 글씨를 참 잘 쓰더라. 또 잔디 아버지도 멋진 분인가 봐. 도자기도 굵고 조각도 하신대.”

짜깁 연희의 말에 나는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날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 민정아 친하게 지내자. 이것 너 줄게.”

잔디는 아버지가 만드셨다는 작은 목각 인형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 너희 아버지 혹시 목수 아니시니?”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 그냥 아버지 취미로 만드신 거야. 우리 아버지 솜씨가 좋으시거든.”

잔디는 툭하면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도 ‘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라는 토를 꼭 달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 아버지가 교수님이라고도 했고 돈 많은 사장님이라고도 했고 예술가라고도 했다. 나는 은근히 훌륭하지도 않고 그저 회사일에만 열심인 아버지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잔디에게 노래를 시키셨습니다. 잔디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잘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 흥! 또 아버지 타령!’ 나는 잔디를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 그런데 잔디는 소리를 내지 않고 두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아, 그것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말! 바로 수화였습니다. 잔디는 노래를 부르면서 생긋 웃고 있었지만 내 가슴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고전 13:4)"



◀추억 생각하기▶ 청룡부대, 맹호부대.....
 “삼천만의 지랑인 대한해병대 얼룩무늬 번쩍이며 정글을 간다 월 남의 하늘아래 메아리치는 귀신잡던 그 - 기백 충렬에 담고 붉은 무리 무찔러 자유지키려 삼군의 앞장서서 청룡은 간다”
 기억나시죠? 월남전을 위해 파병되었던 청룡부대 노래. 또 맹호부대 노래도 생각합니다. 낭랑한 이시스터스가 불렀던가요? “자유통일위해 조국을 시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부대 용사들이 가시는 곳 월남땅 하늘은 멀더라도...”. 자유를 지키려 목숨을 초개같이 바쳤던, 우리나라를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파월장병 용사들이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5권 11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3월 16일
☎520-9464.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값과 값어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상품화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좀 팔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여서 곧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며 값을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 돈을 내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농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 집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 것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할 것인데 무료인 것을 보면 아무 효력 없는 약일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가만히 창문으로 보니 농부가 그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지며 발로 문질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온 가족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미련한 농부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무가치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런지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전 1:18-

엄마가 딸에게
 밤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도
 헤아리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님이 돌아갈 때
 금방 문을 닫지 마라
 마치 쫓아 내는 것 같아서
 다시 오기 싫어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2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8(고전 13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197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 23:33-38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저희를 용서하소서'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04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 친교부(주방봉사) 2절: 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3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노은숙	김선영	예배부	김인원, 김종원
9	박일영	김순화	김경일, 이선헌	김진근, 민광호
16	이광희	김심홍	친교부(주방봉사)	박병민, 박상옥
23	이규임	김인원	경덕현, 김인희	박실, 박재양
30	이재영	김인희	유성희(다슬, 다은)	박태원, 서동완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지난 수요일엔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중요한 여권을 잃어버려 몇일동안 속도 상했지만 어쩌나 신경을 썼던지 토요일엔 눈까지 침침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이 상하니 기도할때도 편치않았습니다. 교우들이 속상한 일을 당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실거예요"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일 당하면 기도한번하고 훌훌 털어 낼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인줄 착각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도 몇일 후엔 다시 원기를 찾은 0집사님이 계신데 한푼 안 잃어버리고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뽕뽕이 속에 믿음없는 목사님이 여지없이 드러난 한주간이었습니다.

- 교우소식
 - *남형진. 이영숙 성도가정.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 *차명은 성도(안희진 성도 남편). 싱가포르에 직장을 얻어 먼저 출국하셨습니다
 - *한정옥 집사. 한국방문후 귀국하셨습니다
- 오늘은 식사친교주일입니다(매월 3째주일)
 - *콩나물밥이란 귀뜸에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의 침(58년 개띠)이 고였습니다
- '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
- *부활의 소망을 주신에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여 바치는 헌물은 자원하여 드리면서도 그만 가져오라고 할정도로 차고 넘침이 있었던 출애굽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문의: 박병민 집사)
- 주차안내: 교회당 뒷편 주차장은 어린이, 학생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키 위해 교회 옆 U-BIX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여선교회 모임
 - *장소가 협소하여 선교회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갖겠습니다
 - <제1 남여선교회> 출수달 4번째 주일 <제2남여선교회> 짝수달 4번째 주일
 - *그 외 필요한 회의는 선교회별로 갖습니다
- 권사기도회(예고): 매월 1일에 갖겠습니다.
 - *3월기도모임: 18일(화) 오전 10시, 교회
- Tracking Club: 숲속의 맑은공기를 가슴에 담고 심신단련과 산상기도를 겸한 Tracking Club을 만들고 싶습니다. Club의 창설과조직, 운영을 책임져 주실 자원교우를 기다립니다(월1회 Tracking예상).
- 새벽기도회: 3월은 "교우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갖습니다. *매주 금요일 6:00am
- 수요일예배: 찬양, 기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1시간은 나와 가정을 위해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 7:30pm

◀착한 시인들▶ **삼**
-무시킨-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난 것은 모두 그리워만 진다

질척이던 삶을 속명처럼 지고 가야했던 그 시절에 시골 이밭소에 하나씩은 걸려있던 시였습니다.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시를 읊조리며 넘는 여유와 풍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이민, 생활이 잘 안풀리고 있더라도 오늘이 미래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것임을 알아 힘껏 여유있는 가슴을 펴면 좋겠습니다.